

성명	한글 (한자, 예명)	고정희	지역	해남군	사진
	분야	문학, 여성운동	출생 ~사망	1948~199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운동가, 시인, 소설가,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 				
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년 1월 17일 해남출생 데뷔 : 1975년 현대시학 등단 수상 : 대한민국 문학상(1983) 1991년 실족사 				
생애 및 활동	<p>시인 고정희(高靜)는 1948년 1월 17일(음력) 아버지 고양동씨와 어머니 김은녀여사 사이의 5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본성은 성애(聖愛)이다. 1969년<혹조>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75년 『현대시학』 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후 [목요시] 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1979년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광주 YMCA대학생부 간사,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판부 책임간사,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을 지내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 사랑, 정의의 정신을 실천해 나갔다.</p> <p>또한 1984년부터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의 창간 동인으로 참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을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 1991년 6월 9일 지리산 등반 중 불의 사고로 인해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p> <p>시집으로는 『누가 홀로 술틀을 밝고 있는가』 (79년) 『실락원 기행』 (81년), 『초혼제』 (83년), 『이 시대의 아벨』 (83년), 『눈물꽃』 (86년), 『지리산의 봄』 (87년), 『저 무덤 위의 푸른잔디』 (89년), 『광주의 눈물비』 (90년), 『여성해방 출사표』 (90년), 『아름다운 사람 하나』 (91년)등과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 (92년)가 있다.</p> <p>그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탐구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모든 시에는 생명에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난다.</p>				

	<p>고정희의 친구이기도 한 사회학자 조한혜정은 “한편에서는 여성의 고통을 가볍게 아는 ‘머슴마’들에 치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의 고통을 가볍게 아는 ‘기집야’들에 치이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시인”이라고 고정희의 삶을 평했다.</p> <p>시인 나희덕은 “고정희는 서정시의 좁은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부단히 탐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 금기시되던 시적 언술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선구적 역할을 인정받기에 충분했다”며 “고정희가 없었다면 한국문학사에 페미니즘이라는 중요한 인식의 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 것이다”고 말했다.</p> <p>해남신문의 고문인 김원자는 한국 문학사에서 고정희 이전에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역사성’ 그리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방식’을 특별한 문학적 가치로 강조하고 이론화한 작가는 아무도 없었으며, 초기 시,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 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그리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탐구는 한국문학사에 남을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p>
<p>기록물 참고문헌</p>	<p>고정희 생가 안내판 글(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259번지) 위키백과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정희(2013). 전남여성생애사5. 전남여성플라자</p>
<p>기 타</p>	<p>▪</p>